

나는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1-8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일곱 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6:35)/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나는 양의 문이다(10:7)/ 나는 선한 목자다(10:1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나는 참 포도나무다(15:1) 오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친밀한 관계요 썰레야 썰 수 없는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버림받고 마지막에 지옥 불에 던져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15:5-6)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으로 마침내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 받길 원한다면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열매 맺는 삶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모든 공직에서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큰 포도밭을 사셨습니다. 집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밭인데 그 분의 관심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잘 맺히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밭이 다소 떨어져 있었지만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도밭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요 15:1-4)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방해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순간에 허물어 버립니다. (아 2:15a)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이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1889년 5월 31일 펜실베이니아주 사우스포크 댐이 붕괴되어서 발생한 홍수로, 2,209명이 죽고 1,000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쥐가 파기 시작한 흙 댐의 구멍이 점차 커질 때 관리들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결국 그 댐이 터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래저래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하루 이틀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작은 피곤함, 작은 분주함, 작은 산만함, 작은 교만함 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이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들을 내 삶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내 삶에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매일 가장 중요한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 확실히 비워 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런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많이 맺힐 것입니다.

2. 응답받는 삶

기도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를 통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약속, 말씀에 주어진 방법들을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곧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는 확실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든 내가 변하든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3. 제자 되는 삶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3년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모든 민족을 교인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제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한 단어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8)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또한 제자가 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내 취미를 버려야 합니다. 내 좋아하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더 대형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이든 소형교회이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의 길, 제자 삼음의 길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무리를 넘어, 교인을 넘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자를 남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밖에 사시겠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나 아무것도 아니니, 주여 기쁘고 슬플 때 늘 주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응답받는 삶, 제자 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나눔의 시간 ○

1.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2.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3.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4.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한 제자 삼는 삶이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포기해야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